

[보도자료] 쿠팡풀필먼트서비스, 인하공전서 ‘CFS 채용 페스타’ 개최 550여명 지원 ‘성황’

2026. 6. 24.



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23일 인하공전에서 ‘CFS 채용 페스타’를 개최했다

- 센터 채용담당자, 지게차·오더피커 운전원, 물류 현장사원, 현장관리자 등 직무 모집
- 하루 4시간·주3일·주말 전담 등 유연계약직 본격 도입 일자리 선택권 넓혀
- CFS “구직자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유연한 채용 모델 지속 확대할 것”

2026. 06. 24. 서울 - 쿠팡풀필먼트서비스(CFS)가 지난 23일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서 개최한 ‘CFS 채용 페스타’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.

이번 단독 채용박람회에는 대학생, 주부, 중장년층 등 총 550여명의 구직자가 몰려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.

모집 분야는 센터 채용담당자를 비롯해 지게차·오더피커 운전원, 물류 현장사원과 현장관리자 등 물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직무다. CFS는 이번에도 직무 상담부터 현장 면접까지 한 번에 완료하는 ‘원스톱’ 채용 시스템을 운영해 지원자들의 편의를 높였다.

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구직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생활 패턴에 맞춰 근무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는 ‘맞춤형 유연계약직’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.

CFS는 기존의 주 5일 풀타임 근무뿐만 아니라 하루 4시간(숏타임), 주 3일, 주말 전담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대거 선보였다. 이를 통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려는 주부층, 기존 경력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중장년층, 평일 학업이나 개인 일정이 있는 구직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.

박수현 CFS 최고인사책임자(CHRO)는 “CFS는 구직자들이 물류 전문가로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원자의 상황과 필요를 섬세하게 반영한 유연한 채용 모델을 확대해, 더 많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”고 전했다.

한편, CFS는 6월 한 달간 여주, 천안, 서울, 경기광주, 인천, 이천 등 물류 네트워크 거점을 순회하며 'CFS 채용 페스타'를 활발히 전개했다. 이러한 채용 열기를 이어 오는 7월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관련 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